

2차전지 · LED R&D 지원 확대

녹색성장위, 3월 녹색기술센터 설립 ... 8대 중점 관리기술 선정

정부가 녹색기술센터를 설립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2년 업무보고 및 제5차 이행점검결과 회의>에서 녹색기술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녹색기술센터를 3월 설립하고 창업 초기단계의 중소기업에 R&D 자금 지원을 75%에서 90%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녹색기술센터는 국가 차원의 R&D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녹색기술센터는 정부가 2009년 <27대 중점 녹색기술>로 선정한 실리콘계 태양전지와 고효율 저공해 수계수질관리, 가상현실, 수소에너지, 도시재생, 바이오에너지, 지능형 교통물류 등의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3월에 20여명의 인력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2012년 하반기 인원과 조직을 보강해 별도 운영위원회를 갖춘 독립기관으로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녹색위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정부의 녹색기술 R&D 투자를 늘려 선진국과 기술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그럼에도 연구 사업에서 일부 중복이 발생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센터를 설립키고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R&D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8대 중점 관리 기술 대상을 선정했으며, 바이오에너지·2차전지(교과부), 태양전지·풍력에너지·연료전지·LED(Light Emitting Diode) 응용(지경부), 대체수자원 확보(국토부), 폐자원 에너지화(환경부) 등으로 역할을 분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1/26>